

문화산책

전남 글로컬 미래교육과 청풍초 영화학교

박기복

영화감독



지난 여름, 전남 화순의 작은 학교 청풍초등학교(김효관 교장) 교정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운동장 한켠에 카메라가 세워지고, 아이들은 대본을 들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숨을 골랐다. 전교생 23명. 누군가는 배우가 되고, 누군가는 촬영감독이 되었으며, 또 다른 아이는 조명과 음향을 맡았다.

그렇게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한 편의 장편 영화가 완성됐다. 제목은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화순 폐광의 기억을 배경으로 차매에 걸린 할머니와 손녀의 시간을 그린 가족영화다. 이 작품은 화순군(구북구 군수)과 청풍초가 협업한 지역공동체 영화로, 오는 4월 화순 시네마극장에서 퇴직 광부와 군민을 초청해 상영될 예정이다. 작은 시골 학교의 도전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아이들이 카메라에 담아낸 것은 단순한 이야기기 아니다. 한때 지역 경제를 떠받쳤던 광부들의 삶과 희생,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온 가족의 서사가 화면에 스며 있다. 폐광은 더 이상 사라진 산업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아이들이 다시 불러낸 기억의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로 재구성해 세상에 내놓았다. 교과서 밖에서 이루어진 살아

있는 배움이었다.

청풍초는 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박기복 영화학교'는 단순한 예술 체험을 넘어선다. 기획과 시나리오 작업, 촬영과 연기, 편집과 상영까지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워크숍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필자는 이 과정을 함께하며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카메라 앞에서 수줍어하던 아이가 어느새 당당히 의견을 내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며 장면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교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성장의 장면이었다.

초등학생이 율로케이션 촬영으로 50분 분량의 장편 영화를 완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전교생이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는 과정은 인내와 배려를 요구한다. 갈등도 있었고, 실수도 반복됐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끝까지 해냈다. 영화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협업과 책임, 도전과 성취를 배웠다. 시험 점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한 편의 영화가 태어나는 일은 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일과 닮아 있다. 열정과 기술, 자본과 협업,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는 이야기. 이 다섯 요소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영화는 생명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은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그 기억은 삶의 어느 순간 힘이 된다. 때마침 들뜬다 보면 내리던 새씨가 울트듯, 배움의 씨앗도 그렇게 자라난다.

지금 전남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다.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

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이 제시한 '글로벌 미래교육'은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교육은 더 이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만 머물 수 없다.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전략이다. 세계의 학생들이 전남에서 함께 배우고, 전남의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 목표다.

청풍초의 영화 수업은 이러한 글로벌 미래교육이 교실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화는 더 이상 학예회 발표로 끝나는 결과물이 아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는 콘텐츠이자, 다른 나라 학생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된다. 작은 학교의 아이들은 스스로를 '변방의 학생'이 아니라 '창작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존감이 달라지고, 시야가 넓어졌다.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의 영화가 남긴 울림은 분명하다. 아이들에게 지역은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전남에 대한 전국 글로벌 교육의 실험실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화와 미디어, 인공지능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세계와 소통하는 창작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작은학교 운동장에서 켜진 카메라의 불빛이 전남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그 빛이 지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아이들의 꿈을 더 넓은 무대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기고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



도심까지 위협하는 산불, 예방중심 패러다임 절실

추정되었다. 이는 중형차 7000만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과 같다. 또한 산불은 주민들의 생계 수단도 앗아간다. 경북 영덕군의 송이 생산량은 전국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화마로 송이 생산지 4000여ha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 향후 30~40년 동안은 이 산에서 송이를 채취할 수 없게 됐다. 삶의 터전을 잃은 셈이다. 이렇듯 산불은 자연환경 파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 전남도의 산불 건 수는 현재 15건이다. 주택 화재 4건, 쓰레기소각 5건, 입산자 실화 2건 등 모두 생활 활동에 의한 산불이다. 산불은 한 사람의 실수로부터 시작되어 마을 전체를 위협하고 그 흔적은 수십 년 간 남는다.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산림인접지 불씨 부주의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가 산불예방 활동을 중요한 실천과제로 삼아야 한다.

기상청은 평년 대비 불리한 기상전망을 내놨다. 3월부터 4월에 라니냐 최후와 북대서양으로부터 전파된 대기 파동에 의해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기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림청도 산불발생위험 예측을 전국적으로 "높음" 단계로 제시했다. 최근 29년 동안 해수면 온도, 상대습도, 바람, 토양수분, 강수량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가 6번째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작은 불씨는 대형 화마가 될 수 있어 전남도는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산불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불법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과태료 최대 200만원,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경우 사법기관에서는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농업·환경·산림부서 합동단속반도 운영해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화목보일러의 불씨관리 강화다.

전남도는 산림인접 200m 이내 화목보일러 사용 4000여 가구를 목록화하여 불씨관리를 점검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해 주요 산과 등산로의 통제도 강화한다. 현재는 30% 이내이나 산불 위험도에 따라 최대 100%까지 입산을 통제하여 실화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렇듯 예방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요소를 줄여 나가는 한편, 산불이 발생 되었을 때는 신속하고 강력한 진화를 위해 진화지원의 압도적 투입과 산림청,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산불재난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 주민들의 생활속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막을 수 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단위 자율적 산불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과 시설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취재수첩

봄을 가장 오래 남기는 방법

정재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무등산 자락에 부는 바람이 부드럽리질 즈음, 무대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전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따뜻한 온도지만, 그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문화예술계 현상이 아닐까. 공연계는 광주예술의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을 중심으로 봄 시즌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창작 무용, 연극 무대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미술관과 갤러리 역시 마찬가지다.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면서 자연과 생명, 회복, 연결 같은 보다 밝고 희망적인 주제를 내세운 기획전이 주를 이룬다. 계절과 호흡을 맞추듯, 작품은 생기를 띠고 관객의 발걸음을 늘어난다. 미술관 로비에 퍼진 길어진 낮빛은 작품 감상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든다.

영화계도 계절의 전환을 스크린에 옮긴다. 광주극장과 독립영화전용관은 기획 상영전 등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뿐만 아니라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GV) 등 스크린을 매개로 한 소통의 장을 확장시킨다.

봄의 문화예술은 '만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공연은 무대와 객석의 만남을, 전시는 작가와 관람객의 대화를, 영화는 스크린과 관객의 시선을 교차하게 한다.

이들 통해 겨울 동안 느껴졌던 공동체적 감각이 다시 조밀해진다. 한 공간에 모여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경험은 계절의 온기만큼이나 소중한다.

봄은 지나더라도 그 안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가슴속에 남은 울림은 오래도록 남기 때문이다.

계절이 건너는 이 짧은 시간을 문화예술과 함께 보내 보는 것을 권한다. 문화예술이아말로 계절을 가장 오래 남기는 방식이 될 터다.

사설

전남 합계출산율 1위지만 갈 길 멀다

전남이 작년 합계 출산율 1.1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4년(1.03명)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00명(6.8%) 증가했다. 이는 15년 만의 최대 규모로 코로나로 미뤄진 혼인이 증가하고,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결혼 후 바로 자녀 출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도 1년 전 0.75명보다 0.05명 증가한 0.8명으로 올라섰다.

전남은 합계출산율 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영광군은 합계 출산율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1위를 차지했다. 장성 1.68명, 강진 1.64명, 함평 1.43명 등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0.76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의 합계출산율 1위는 영광군 등 일부 시·군의 높은 출산율과, 전남도 전반의 출산·육아 지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남도는 만 18세까지 출생 기본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확대, 임신 전·후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난임 지원 확대와 산모·신생아 방편 건강돌봄 서비스 등 제도적 기반도 넓히고 있다.

영광군은 일자리로 청년을 유입해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도 지원하는 '일자리-청년-결혼-출산'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호응을 받고 있다.

문제는 출산율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정상계대로 이르기까지 한참 부족하다는 데 있다.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대체출산율은 2.1명인데 현재 출산율은 0.8명에 불과,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전체 인구는 사망자 수(36만 3400명)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10만8900명 줄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구 지역화폐 올해도 골목상권 살린다

광주 자치구가 시민들의 합리적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지역화폐가 올해도 인기다.

일부 자치구 지역화폐들은 발행 한 달도 채 안 돼 완판 행진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자치구들도 서둘러 발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 북구는 내달 3일부터 8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본격 판매기로 했다. 지난해 발행 6일 만에 100억원 완판 기록을 세운 부끄머니는 올해도 은누리상품권과 광주상생카드(10%)보다 높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만 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사용 활성화와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 북구 소재 광주는 행으로 한정했던 구매처를 광주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발행을 시작한 80억원 규모의 광산구 '광산사랑상품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 24일 만인 지난 24일 전량 소진됐다. 이는 작년 11월 5일 100억원 규모로 발행돼 12월 15일까지 40여일 소요된 것에 비해 속도가 빠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발행한 40억원 규모의 광주 남구 '동행카드'도 닷새 만에 전액 완판됐다. 작년 처음 발행 때 30억원 규모가 두 달 만에 완판된 것과 대조적이다. 남구 지역화폐도 역시 15%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23일부터 판매한 40억원 규모의 동구 '동구랑페이'도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가맹점에서 동구랑페이 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한 참여자중 100명을 추첨해 선불카드 5만원권을 지급하는 페이백 이벤트도 열고 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은 서구는 지역 내 상생가 전체를 '골목형상생가'로 지정해 은누리 상품권의 10% 할인 혜택과 매달 10%할인혜택을 추가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열며 20% 가까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각 자치구들이 지역화폐 발행에 올인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 위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카드도 이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 부담과 반짝 경기 활성화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